



스위스에서 만나는 월드 투어.

이번에 스위스 여행간 김에 세계 여행 했잖아!

스위스 젊은이들이 키득대는 리스트

스위스 안에서 만나는 세 개의 대륙, 16 개의 나라 풍경

노르웨이, 아일랜드, 미국부터 네팔, 라오스까지

스위스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스위스 사람들도 속을만한 이색 풍경

요즘 스위스 젊은이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리스트가 하나 있다. 바로, 스위스 내에서 만나는 세계의 풍경 사진들이다. 스위스는 다채로움으로 유명한 나라다. 자연은 물론 네 개의 문화권과 언어권이 만들어 내는 풍경이 이 곳이 한 나라인가 싶도록 다양하다. 스위스 사람들은 이 사진들을 돌려 보며, ‘뭣하러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나? 스위스 안에서 월드 투어를 할 수 있는데.’라고 농담 중이다. 우리나라 여행자들도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다채로운 풍경을 만나기에 좋은 리스트다. 스위스 안에서만 세 개의 대륙, 16 개 나라를 여행할 수 있으니 말이다. 노르웨이부터 라오스까지.

1.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피요르드 해안을 떠올리게 만드는 풍경은 스위스 남부 발레(Valais) 주의 에모송(Emosson) 댐에 있는 슈타우제(Stausee) 호수에서 만날 수 있다.

2. 아일랜드



질푸른 초록의 아일랜드 언덕을 보는 듯한 이 풍경은 베르네제 오버란트(Bernese Oberland) 주에 있는 그린델발트(Grindelwald) 근교에 마련된 피르스트 클리프 워크(First Cliff Walk)를 따라가는 길에 만날 수 있다.

3. 남부 잉글랜드





뉴사텔 호수(Lake Neuchâtel)에 자리한 고르지에(Gorgier) 마을에서는 전형적인 영국 해안가의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

4. 네덜란드



다채로운 빛깔과 크기의 튤립이 화려하게 수 놓은 공원은 레만(Léman) 호숫가에 자리한 작은 마을, 모르쥬(Morges)에서 찾아볼 수 있다.

5. 벨기에



다닥다닥 붙은 붉은 지붕의 건물들은 벨기에의 한 도시를 연상케 한다. 시계의 마을, 라 쇼드퐁(La Chaux-de-Fonds)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이다.

6. 독일



독일의 노인슈반슈타인(Neuschwanstein) 성처럼 동화책에 등장하는 고성과 그 뒤로 펼쳐진 믿을 수 없는 풍경을 찾고 있다면, 여기에 조금 더 겸손한 풍경의 스위스 버전이 있다. 베르네제 오버란트(Bernese Oberland) 주에 있는 마을, 툰(Thun)에 있는 툰 성이다.

7. 이탈리아



이탈리아에 있는 기이한 형상의 봉우리가 모여있는 돌로미테스(Dolomites)같은 산 풍경을 원한다면 프리부르(Fribourg) 지역에 있는 가스트로젠(Gastlosen) 산에서 하이킹을 즐겨 보자.



8. 에콰도르



아마존 우림에서 정글 탐험을 즐기고 싶은 날이라면, 스위스 동부 그라우뷘덴(Graubünden) 주에 있는 플림스(Flims)로 향하면 된다. 카우마제(Caumasee) 호수의 에메랄드 빛 물을 따라 흡족한 산책을 즐길 수 있다.

9. 캐리비안



아일랜드 휴리데이를 꿈꾸고 있다면? 스위스 남부의 이탈리아어권, 티치노(Ticino) 주에 있는 마조레(Maggiore) 호수의 브리싸고(Brissago) 섬에서는 캐리비안 해안가의 느낌을 충만히 받을 수 있다.

10.그랜드 캐년 | 미국



그랜드 캐년을 보러 굳이 태평양을 건널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면 스위스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찾아보면 된다. 쥐라(Jura) 지역에 있는 그뤼 뒤 방(Creux du Van)에서 스위스판 그랜드 캐년 투어를 즐길 수 있다.

11. 콜로라도 | 미국



다음 목적지는 서부다. 진짜 카우보이를 만나더라도 놀라지 마시라. 루체른(Luzern) 근교에 있는 쇠렌베르그(Sörenberg)에서는 노을을 바라보며 승마 체험을 즐길 수 있다.



12. 록키 산맥 | 미국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놀라운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라 다 발 비올라(Lagh da Val Viola) 호수가 있는 계곡, 발 디 캄포(Val di Campo)는 그라우뷘덴(Graubünden) 주의 발 포스키아보(Val Poschiavo)에서 만나 볼 수 있다.

13. 나이아가라 폭포 | 미국/캐나다



세계 최대의 폭포, 나이아가라는 아니지만, 유럽 최대의 폭포가 스위스에 있다. 취리히 근교의 샤프하우젠(Schaffhausen)에 있는 라인폭포(Rheinfall)다.

14. 알래스카 | 미국



한 겨울, 루체른 호수에서는 알래스카 미척지같은 풍경을 만날 수 있다.

15. 네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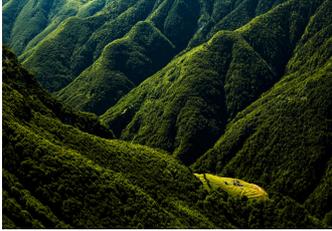
히말라야에서처럼 야크와 트레킹을 할 수 있다. 발레(Valais) 주가 품고 있는 태초의 자연 속에서 말이다. 레조데르(Les Haudères) 마을을 찾으면 된다.

16. 라오스

Switzerland Tourism

13Fl., Dongbu Dadong Bldg., Da-Dong, Jung-Gu, Seoul, Rep. 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Switzerland Tourism.



라오스의 구름같은 숲에서 트레킹을 하고 싶은 날이라면? 스위스 남부, 이탈리아어권 티치노의 온제르노네(Onsernone) 계곡을 찾으면 된다. 모기가 없어 좋다.

자료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 Dongbu Dadong Bldg., Da-Dong, Jung-Gu, Seoul, Rep. 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